



1969년 신문방송학과 1기 졸업생들이 본관 앞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옷에 붙인 명찰과 교표 뱃지에서 지금과 달랐던 대학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진=경희기록관)

신방과 65학번 50년만의 캠퍼스 나들이

모습은 변했지만 열정은 그대로

김지원 기자 kjk990327@khu.ac.kr

“애 너는 가까이 사는 애가 제일 늦게 오니?” 여느 강의실 풍경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사가 오갔다. 동기의 지각을 타박하는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오랜만에 방문한 캠퍼스에서 만난 동문에 대한 설렘과 반가움으로 들떠 있었다. 아직 봄기운이 남아있는 캠퍼스는 청운관 앞 벤치에 모인 흰머리 희끗한 이들에게도 설렘을 안기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달 29일 신문방송학과(신방과·현 언론정보학과) 1기 졸업생 21명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서울캠퍼스를 찾았다.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가 던진 ‘학교가 많이 변했어, 직접 보면 감회가 새로울 거야’라는 말에 신방과 1기 동창회장 강봉식(신문방송학 65) 동문은 과거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우리대학의 캠퍼스를 자랑스러워했다. 김성희 동문은 “학교가 얼마나 예뻤는지 한국외대 학생들이 좌우 우리학교에 와서 데이트 했다”며 “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학교를 걸으면 꼭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석조건물을 형상화 한 SPACE21의 길게 뻗은 기둥은 예나 지금이나 ‘캠퍼스가 아름다운 경희대학교’라는 점체성 형성

신방과 1기 동문에게 지금의 캠퍼스는 낯설어 덧칠해진 익숙한 공간으로 다가온 듯 보였다. 졸업생들은 크고 작은 변화로 달라진 캠퍼스를 바라보며 눈짓과 손짓으로, 때로는 서로의 기억 조각을 맞춰보면서 그 시절을 회상했다. 그들에게도 익숙할 교시탑부터 SPACE21, 정경대학, 동의마당을 거쳐 평화의 전당과 본관 등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는 동안 곳곳에서 감탄과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예전부터 우리학교가 건물을 멋지게 짓기로 유명했지.” SPACE21 건물 앞에 선 김성희(신문방송학 65) 동문은 과거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우리대학의 캠퍼스를 자랑스러워했다. 김성희 동문은 “학교가 얼마나 예뻤는지 한국외대 학생들이 좌우 우리학교에 와서 데이트 했다”며 “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학교를 걸으면 꼭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석조건물을 형상화 한 SPACE21의 길게 뻗은 기둥은 예나 지금이나 ‘캠퍼스가 아름다운 경희대학교’라는 점체성 형성

에 기여한다. 대운동장 입구로 자리를 지키다 지금은 새 건물의 입구가 된 개선문이 그 세월에도 불구하고 마냥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남자 동문들은 개선문의 기둥을 어루만지며 일천한 캠퍼스의 모습에 놀라는 듯 했다. SPACE21 4층 야외 테라스에 오르면 미술대학부터 학생회관까지 학교의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남자 졸업생들은 쉽게 난간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서로의 기억을 맞춰가며 파노라마 위에 그 시절의 것을 겹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노천극장을 보며 “여기 원래 무대가 있었는데 말이야 맞지?”라고 되물으며 서로의 기억을 더듬었다. 노천극장에는 ‘소라관’이라는 무대가 설치돼 있었다. 1959년 10월에 완공, 2015년 6월에 철거됐으니 꼬박 56년 동안 학교의 한가운데를 지킨 셈이다. 노천극장은 1만 5천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노천극장으로 이름을 떨쳤고 입학식과 졸업식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르며 제 기능을 발휘하곤 했었다. 졸업생들은

주차장이 되어 버린 노천극장에서 50년 전의 무대를 떠올리는 듯 보였다.

60살 즈음, 어린 후배들도 숨을 헐떡이는 헐떡고개에서도 이들은 지치는 기색 없이 “매일같이 오가던 학교를 둘러보는 일인걸요”라며 웃었다. 불편한 신발과 높은 계단도 캠퍼스가 주는 설렘과 그리움은 이기지 못하는 듯 했다. “헐떡고개를 다 오르면 구두코에 먼지가 뿐에게 앉은 했지”라고 말하는 김성희 동문은 흙길이었던 헐떡고개의 모습을 상상케 한다. 지금은 차도에 잘 조경된 돌레길이 조성돼 있지만 본래 헐떡고개는 오솔길에 가까웠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야 하는 고개라는 점, 여전히 헐떡고개라는 이름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고개를 오르기 전 심호흡을 하고 단숨에 오른 뒤 헐떡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애증의 고개인 셈이다.

▶12면으로 이어짐

경희인 모두가 함께하는 개교 70주년 기념 주간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우리대학은 오는 18일 개교 70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를 개교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개교 7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위원회)’는 ‘개교 70주년, 경희 100년을 향한 담대한 도전, 지속 가능한 문명 건설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행사를 준비했다.

13일에는 문화공연이 준비돼 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프랑스 오리지널 팀의 내한공연으로, 오후 7

시 30분 서울캠퍼스(서울캠)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구성원, 학부모,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즐기는 장이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와 사은, 나눔 등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선정된 구성원들에 게 공연 초대권 2매씩을 전달했다.

16일에는 해외 동문과의 환담회가 열린다. 학교는 해외 동문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모교의 발전상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70주년 개교 기념식은 17일 오후 3시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교직원과 학생대표, 명예 기관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갈 수

대표, 동문 등이 참석해 학교의 70주년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위원회 오종민 사무총장은 “우리대학은 개교 이래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창학 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가치 아래 학술기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공적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우리학교 70년 역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사무총장은 “개교 100주년까지 학문적 토대를 강화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캠 중앙도서관은 15일 오후 12시 30분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제50회 작은 음악회 “Listen to the sound of spring”을 개최한다. 음악대학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 브리튼 등 유명 작곡가의 곡을 현악 선율과 함께 들을 수 있다. 중앙박물관은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교 70주년 기념 “한국의 기와” 특별전을 개최한다. 기와 문화를 되짚어보고, 전통 문화의 이해와 계승에 일조하는 것 이 특별전의 취지다.

알림

사령

명

〈국제뉴스팀장〉 이서림(한국어학 2017)
〈서울뉴스팀장〉 김수혁(철학 2016)

개교 70주년 특집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경희 70년의 민주주의는
교훈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가 ▶6~7면

기획

대학사회 만연한 족보 매매, 정보의 불균형 없애야 ▶5면

시선

사설

공허한 계획만으로 창대한 끝을 기대 말라

포화의 잣더미 위에 정성스레 심은 목련화가 70번째 꽃을 틔웠다. 경희에 봄담은 구성원의 하나로, 그 70번째 봄을 맞이함에 함께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학내 상황이 쓸쓸하기만 할 뿐이다.

70주년을 맞아 계획했던,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공허하게 남았다. 개교 70주년이자 공과대학 50주년을 맞아 짓는다던 공과대학 패밀리온 건설 사업은 2018년 2학기 이후 한다마다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2012년 11월, 당시 조인원 총장을 위원장으로 주대해 건축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던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신축 계획은 이제 와선 기억하는 이조차 드물다. 총 예산 700억 원 중 2014년 연말까지 기부를 통해 7억 원 가량을 모았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다. 무엇보다 구성원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과 함께 첫 개교기념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이미 요원한 일이 됐다.

축하의 규모도 과거 50주년, 60주년의 거창한 행사를 돌아보면 맥이 빠진다. 축하야 형편에 맞춰 행하는 것이 맞고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해가는 것이 맞다. 다만 ‘100년을 향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담대한’ 슬로건과 구성원의 눈에 비치는 현실이 괴리돼 있다는 점이 괴로울 뿐이다.

기실 매년 찾아오는 개교기념일과 70주년 개교기념일은 크게 다르지 않을 터다. 특히나 올해 개교기념일은 토요일이니, 아쉬움을 표하는 구성원도 적지 않을 터다. 10진수를 기본으로 사고하는 우리이나, 10으로 끊어지는 숫자가 명확하게 다가오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는데 지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한 각종 계획들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학교는 담대하게 시작해 흐지부지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지지부진한 논의에만 10년 가까이를 소요하며 그간 스쳐간 많은 재학생에게 희망과 문물을 안겼던 이제는 SPACE21이라 불리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대표적이다.

또 다시 그렇게 하루가 멀다고 달라지는 계획 속에 언제 완성될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며 10년, 20년을 보내다 맞는 100주년은 사양이다. 구성원은 확실한 약속과 이행을 원한다. 재정은 어렵고, 총장도 없고, 대학을 둘러싼 재판사항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무엇을 근거로 담대한 100년을 내다볼 것인가. 당장 71주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읍기 8장 7절이다. 개역한글 성경 번역이 채용한 ‘창대’라는 단어의 힘에 여기저기 쓰이는 말이지만 이 말을 뱉은 자가 신실한 읍을 조롱하는 친구라는 사실까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성경의 해석이 어떠하든 우리는 창대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담대하게 신중하게, 구성원에게 믿음을 주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 좋은 날에 굳이 쓴 소리를 던지는 이유는 그리하여 모두가 100년째의 목련화를 웃으며 맞이하기 위함임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대학은 지금

소외되는 이 없는 따듯한 캠퍼스 “각자도생 대신 공존의 자세 필요해”

김지원 기자 kjkw990327@khu.ac.kr

지난 2일 인제대에 재학하는 30여 개 국가 4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범죄예방 및 소방안전 교육을 받았다.(인제대, 외국인 학생 위한 범죄예방·안전교육 실시/한국대학신문, 2019.5.5.) 김해 중부경찰서 외사계에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과 보이스 피싱, 도박, 마약 등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안전한 유학 생활을 보내도록 당부했다.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연세대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1년간 글로벌기초교육학부(GBED)에 소속된다.(GBED, 학교와 학생들의 동상이동 ‘외국인 학



이 주의 주제 -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부탁드립니다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여러 학내 사안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다니다 보면 자연히 학교 곳곳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구성원들을 취재원으로 만나게 된다. 취재원들은 하는 일, 맡은 역할에 따라 취재에 응하는 태도도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반갑게 맞아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경계부터 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미처 묻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과 속집에 묻지 않으면 좀처럼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기도 한다.

때로는 아주 노련한 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반갑게 맞아주고, 하나만 물어도 둘에서 열까지 폭포 같은 대답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바쁘게 쏟아지는 말을 수첩에 받아 적고 나면 아주 뿐듯한 기분마저 든다. 하지만 편집실로 돌아와 수첩을 펴놓고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든다. 3~40분을 넘게 인터뷰했는데 정작 기사로 쓸 수 있는 내용은 한, 두 문장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태도의 취재원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는 어렴풋하게나마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혹은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 얼굴을 마주했을 때부터 ‘이 취재원은 어떤 유형일지’ 판단이 서게

된다. 취재 방식 역시 취재원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기자 입장에서 어떤 유형이 좋고 싫은지는 자명하지만, 기자에게 ‘싫은’ 취재원이라고 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취재원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일과 목적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취재 응대는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사로 쓸 만한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느냐는 어디까지나 기자의 역량이다.

하지만 취재원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자 입장에서는 들을 때마다 긴장되는 말이 있다. 바로 ‘오프 더 레코드 부탁한다’는 말이다. 오프 더 레코드 요청을 들으면 거의 언제나 두 가지 감정이 뇌리를 스친다. 알쏭달쏭하던 사건의 전말을 이제야 좀 파악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한 가닥이고, 결국 기사로는 못내겠구나 하는 걱정이 다른 한 가닥이다.

할 수 있는 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취재원의 신변이나 취재 대상인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고민을 피할 수 없다. 취재원과의 신뢰 관계 역시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보도로 얻을 공익과 부작용을 저울질해봐야 하는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결국 기자로서 판단과 편집방침에 따라 오프 더 레코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취재원이 호의적으로 취재에 응해 줬다면 당연히 더욱 힘든 결정이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기를, 우리의 일과 목적을 이해해 주기를.

생 보호 장치인가?’…입장 차는 여전해/연세춘추, 2019.5.16.) 유학생들은 학사 관련 공지가 늦게 이뤄진 점, 기준 소속 학과보다 등록금이 높다는 점,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교류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 불만을 토로했다.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도 불만이 계속되자 지난달 19일 총학생회(총학)는 입장문을 통해 “GBED 관련 논란은 학교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미흡한 행정 처리에 관한 문제”라며 “조만간 GBED 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도서관) 내 일부 시설 및 이용에 장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미처 몰랐던 장애 학생들의 불편함/한대신문, 2019.5.6.) 도서관 1층 장애 학생 휴게공간인 ‘더불어숲’ 기자재 관리 문제, 청결 상태 문제가 지적됐다. 6층짜리 건물에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2층에만 존재한다는 점과, 도서 대출 시 휠체어 이용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등도 문제였다. 도서관 측은 “학생들에게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중앙대 제13차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이 심의됐다.(장애학생 지원 범위, 이전보다 넓어진다./중대신문, 2019.5.6.) 개정안에는 기존 방침에 더해 지원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을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겠다는 절차가 추가됐다. 그밖에도 교수·학습 지원, 시설·설비 지원, 상담 지원 등 지원체계도 다방면에서 개정됐다. 학생교육실무소위원회 학생 위원 구성에도 장애학생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부산대에서 ‘개정 강사법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각자도생 대신 공존의 자세 필요해”/부대신문, 2019.5.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노조) 임순광 전 위원장은 개정 강사법에 대한 설명과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연했다. 해고자 구제책 마련, 경력단절 강사를 위한 공익형 연구지원사업 신설, 예비강사 대학원생 연구 지원 사업 신설 등이 제안됐다. 임순광 전 위원장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공존의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경희, ‘꾸준히 연주된 그리고 연주될’

세시봉

김지원 기자



시간만큼 공평한 것을 있을까 싶다. 숨 쉬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다. 빈부도, 성별도, 나이도 거칠 것 없이 모두에게 공평히 매일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한 달이, 일 년이 된다. 시간은 꼭 그렇게 흐른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300년 된 바이올린을 보았다. 확실히 좋은 소리였으나 20억 원이라는 가격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본디 소모품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낮아지기 마련이다. 알고 보니 악기는 어떻게 다뤄졌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게 된다고 한다. 바이올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연주되면 악기 내부에 소리가 지나는 미세한 흠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그 악기의 가치가 된단다. 즉 꾸준히 연주되고 정성스레 관리된 악기에게 시간의 흐름이란 소모가 아닌 가치인 것이다.

그저 학문의 전당으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느덧 개교 70주년이 되었다. 허허벌판에 들어선 목조건물이 어디 내놔도 어깨가 으쓱한 새하얀 석조 건물이 되기까지의 시간이었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목표를 쫓고 ‘학술과 평화’에 대해 고민한 시간이었다. 당시를 마주했던 순간은 길었지만 돌아켜 생각하면 다소 찰나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학술과 평화’ 실현에 대해 고민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고 지구사회봉사단(GSC)을 운영하며, SPACE21을 추진했다. 미래사회에 주역을 기르는 미래대학의 자세를 갖추는데 종력을 기울인 것이다. 또 국내 대학의 세계화를 외치며 꾸준히 세계 유수의 대학과 국제기구와 교류, 협력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최근에는 타임즈고등교육 2019 아시아 대학 평가 국제화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거듭된 고민과 실천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이제 우리 대학은 단순한 세계화를 넘어 지구적 존엄과 공동체 형성을 향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더 나은 인간이 만드는 더 나은 세계를 꿈꾼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교양교육에 혁신을 더하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학문 간의 융합을 꾀해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는가 하면 오래된 학문을 혁신하기도 한다. 이 모두 더 나은 인간을 길러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300년 된 바이올린에 새겨진 미세한 흠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때문에 우리대학이 그간 지나온 발자취를 그 흠에 비유하는 것은 삼가겠다. 다만 그것이 오랜 시간 꾸준히 연주된 결과 얻은 흠이라는 사실은 알기에 우리대학이 지나온 시간 역시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고 이야기하고 싶다. 시작은 도전이었고 성장이었으며 때로는 역경을 맞기도 또 이겨내기도 한 시간이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대학이 꾸준히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 할 것이기에, 앞으로 마주할 100주년, 200주년, 마침내 300주년에는 당당히 바이올린에 새겨진 흠, 즉 시간의 흐름에서 얻은 가치를 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웅 | 편집장 이승호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문(주)
구독료 1년 만원 | 구독 02-3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디렉터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

▶1면에서 이어짐

이번 ‘대평의 규정안 논란’은 지난달 22일 제5차 대평의에서 ‘대평의 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일부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교수의회는 지난 24일 소식지를 통해 “4월 19일(제4차), 4월 22일(제5차) 열린 대평의에서 토론과 수정과정을 거쳐 ‘대평의 규정안’이 도출됐다”며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교수 75%, 직원 10%, 학생 7.5%, 동문 7.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에서 54% 가량으로 합의됐던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이 이번 대평의 규정안에선 75%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범대위가 합의했던 투표반영 비율이 크게 뒤집히면서 “구성원들이 이미 민주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교수의회가 독선적으로 뒤집었다”는 구성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범대위는 지난해 ‘총장후보보조→총장후보압축→법인이사회최종선임’이라는 총장 선출 3단계 구조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범대위는 ‘총장후보압축’ 단계에서의 구성원 투표 시행과 아울러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교수14:직원4:학생4:동문4로 정했다. 또한 법인은 지난 3월 초 규정 초안을 통해 교수15:직원5:학생5:동문5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제시했다.

법인이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늘린 가운데, 대평의 규정안을 둘러싼 구성원 간 갈등은 아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논의의 자리 또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한상 위원장은 지난 8일 “대평의나 교수의회로부터 ‘대평의 규정안’과 관련해 논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 또한 “현재까지 구성원 간

논의는 예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총동문회는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 변경에 관한 투표 이후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총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수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이미 3년 전 김홍두 의장 시절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장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비율을 바꾸자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범대위와 법인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임 총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각 구성원 단체가 작은 이익에 연연해선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만일 오는 20일까지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번 학기 내 총장 선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방학 중엔 총장 선출제 논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던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총장 선출제 입안과 관련한 논란은 다음 학기까지 장기화될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총장 선출제 입안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 법인의 정기 이사회는 오는 8월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소통과 논의 마련이 급선무라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민경(국어국문학 2019) 씨는 “학교는 여러 주체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동체”라며 “갈등 해결을 위해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형(철학 2016) 씨는 “구성원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민주적 총장 선출 방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3일 구성원 합의없는 총장후보선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축제기간 주류 구입, 생협 통해 해결하세요

〈생활협동조합〉

배지현 기자 flejtjsdp@khu.ac.kr

【서울】 축제기간 중 교내 주류 구입이 2019년 봄 대동제 동안은 생활협동조합(생협) 부스를 통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생협이 종학생회(총학)와 협의를 통해 주류 판매 부스를 축제 기간 청운관 앞과 협동관 앞 두 곳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축제 기간 학우 분들의 원활한 주점 이용을 위해 생협 측과 논의했다”며 “생협에서 운영하는 주류 판매 부스가 교내 두 곳에 설치돼 이곳에서 주류를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1일 교육부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제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내 대동제 기간 교내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총학, 축제 주류 판매금지 수용, 단대 학생회는 ‘율상’/대학주보 1634호 1면, 2018.05.14.) 주제법 제8조는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로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류 판매업면허가 없으니 매 축제 때 진행되던 각 단과대 차원의 주점 내의 주류 판매가 일체 중단됐다.



(사진=대학주보 DB)

교내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기존과 달라진 주점 운영 방식으로 인해 주점 기획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주점을 이용하는 학생들 또한 외부에서 주류를 사서 반입해야 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손효자(외식경영학 2017) 씨는 “지난해 축제 때는 교내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다보니 손님들이 주류를 외부에서 직접 사오는 것에 많은 불편을 토로했다”며 “2017년에 비해 주점 이용 손님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총학 김 회장은 “생협 부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교내 주류 구입이 가능해져 주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며 “열심히 준비한 70주년 축제인 만큼 많은 학우 분들이 이번 축제를 좀 더 즐겁게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축제 기간 주류 판매로 발생한 수익 일부는 주점을 진행한 단위에 지원금 형식으로 되돌려질 예정이다.

생협 부스를 통한 교내 주류 판매 소식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민주(정치외교학 2018) 씨는 “주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축제기간 동안 설치될 생협 주류 판매 부스 덕분에 주점 기획의 많은 부분이 수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총학 김 회장은 “생협 부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교내 주류 구입이 가능해져 주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며 “열심히 준비한 70주년 축제인 만큼 많은 학우 분들이 이번 축제를 좀 더 즐겁게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통과 화합의 장 이끄는 ‘경희 70 이니셔티브’

김재윤 기자 kju0808@khu.ac.kr

2019년 한 해 실시될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에 지난 3월 모집된 ‘경희 70 이니셔티브’ 학생 그룹이 봉사와 홍보 활동으로 참여한다. 5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그룹은 귀빈 접대, 행사 현장 안내 등 봉사 활동과 조별 개인별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기념사업은 학교 발전을 위한 구성원 공감대 형성에 방향이 맞춰졌다. 개교기념일이 속한 1학기에는 개교 70주년 문화 공연 및 감사의 밤, 개교 70주년 기념 해외동문 초청 만찬, 개교 70주년 기념식이 예정돼 있다. 2학기에는 PeaceBAR Festival, Magnolia 2019 등 연간 행사를 개교 70주년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 그룹은 이러한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전반적인 진행을 돋는다. 귀



(사진=대학주보 DB)

빈 접대, 일반 안내, 안전 통제 등 봉사 활동이 주요 활동 계획이다.

또한 9개의 조로 나누어 각 조마다 개교 70주년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인별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참여한다. 홍보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기념사업을 알려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하

는 취지다.

학생 그룹 단장 이하은(기약과 2016) 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여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위해 봉사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연구력강화워크숍: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 총괄 편집장’ 초청 강연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는 “연구력 강화 워크샵”의 일환으로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 총괄 편집장’ 초청 강연을
2019. 5. 27(월) 오후 3시에 개최합니다.

학술지 논문 투고의 요령, 주의 사항, Peer Review 절차 등과 관련된 전반 내용을 설명하고,
강연에 참가한 경희대 연구자들의 질의 응답 및
네트워크 세션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적 출판사에서 수년간 재직한 출판 총괄 편집장의
강연을 통해 해외 학술지 논문 투고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언을 받는 유용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9.5.27.(월) 오후 3~5시

장소 : 법학관 3층 대회의실(301호)

연사 : Chris Harrison, Publishing Development Director at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연 구성

	주제 강연 (Publishing in top international journals, Maximizing the impact of your research)
3~4시	- Introduction to writing and publishing your research work - Publishing in top international journals - Tips on submitting your articles to journals - Navigating the peer review process - Maximizing the impact of your research - Open access publishing
4~5시	QnA, Open Discussion, Faculty & Researcher Network

* 주제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강연내용에 따라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링크 : <http://khu-kr.libcal.com/calendar/seoul/CUP>

문의 : 학술연구지원팀 02-961-9285/khsd3016@khu.ac.kr

탐사보도

끊어진 점자 블록…시각 장애 학생 길도 끊긴다



1 내부 계단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다. 2 예술디자인대 외부 입구 계단에 점자블록이 없는 모습이다. 3 정경대의 점형 블록은 계단 한쪽에만 존재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4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가 통행을 방해한다. 5 점자 안내도 까지 이어진 유도 및 점형 블록이 없어 안내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정류장에도 블록이 설치돼야 하지만 국제캠 내 5개의 버스정류장에는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박재령 기자 kpparr@kn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시각장애 학생의 안전한 보행을 돋는 학내 유도 및 점자를 높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매일 위험 속에 살고 있었다. 학교 측은 먼저 관련 민원이 접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향을 유도하고 중요 및 위험 시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주요 출입구와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 화장실, 점자가 표기된 안내도 등 중요시설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 구역에도 유도 및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감지율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내 시설에 해당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전맹 학우가 소속된 정경대학 앞 계단은 경사가 급해 위험하지만 점형 블록은 양 갈래길 중 한 쪽에만 존재

했다. 다른 한 쪽 길 시작 부분에는 블록이 없었다. 네오르네상스관 입구 계단 하단에도 블록이 없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 학생이 건물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점자안내도가 유도블록과 연계되어 설치된 곳은 찾기 어려웠다.

현재 설치된 점자블록으로는 화장실도 찾기 힘들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입구 플라자 화장실에는 점형블록이 입구가 아닌 벽면에 설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청운관 등 대부분 학내 화장실에는 유도블록 없이 점형블록만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 학생인 선운영(화계세무학 2019) 씨는 "유도블록이 없으면 점형블록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며 "유도 블록이 있어야 길이라고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길가에도 대부분의 유도블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끊겨 있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헐떡고개 보행로에는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가 점형블록의 시작점에 설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선 씨는

"지난 월요일 경영대학으로 향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며 "유도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을 지날 때면 늘 이런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부분의 계단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 학생이 다수 소속된 예술·디자인대학관에도 규칙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길의 시작과 끝 중 한 곳에만 블록이 설치되거나 아래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반 화장실과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에만 점자블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마저도 화장실 안으로 들어선 후에야 확인할 수 있고 유도블록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모습이었다. 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한 다른 주요 학내 시설에는 점자블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정류장에도 블록이 설치돼야 한다. 보도 폭이 넓을 경우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좁은 경우에는 점형블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캠 내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유도 및 점형블록은 없었다. 반면 정문 건너편 교외 버스정류장에는 블록이 존재했다.

우리학교에는 전맹과 저시력을 포함해 총 26명의 시각 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서울캠과 국제캠 모두 시각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블록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 선 씨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길이다"라며 "유도블록이 이어지지 않고 표기된 점자조차 위치와 방향이 건물마다 달라 다른 학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학생 학습도 우미 최현진(국어국문학 2016) 씨도 "장애 학생의 이동을 최대한 돋고 있지만 장애 학생 훌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생긴다"며 "시각장애 학생의 관점에서 안전한 학내 보행환경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교의 능동적 대응이 중요해 보인다. 학내 시설이 법에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지정돼 행정 조치가 어렵다. 또 범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시각장애 학생의 편의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의 불편을 직접 듣는 학교의 능동적 자세가 필요했다.

학교 측은 당장의 전면적인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각장애 학생의 요청이 없었고 예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리팀 측은 "아직까지 어디가 미비하다는 시정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며 "장애 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불편한 사항과 미비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면 보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 지원센터 측은 "블록이 미비한 장소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다"며 "예산 전적이 나오는 대로 관리팀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외에도 강의실 점자 표시 등 시각 장애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셋째 주 (05.13 ~ 05.17)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채용행사, 기업체 리크루팅 및 사회진출 프로그램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LG상사 상시채용/인턴십 채용설명회	5.13(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LG상사 상시채용/인턴십 채용상담회	5.13(월) 10:00~17:00	청운관 1층 4번 상담실	
청년취업아카데미 미케팅리서처 양성과정 설명회 (한국조사협회)	5.14(화) 13:30~14:30	청운관 306-1호	
해외 인턴십 설명회(키세아)	5.15(수) 14:00~15:00	청운관 306-1호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채용면접 - 당일 현장 접수/채용설명회·특강 - 사전신청(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연수신청) 또는 당일 현장접수

* 협조전 발급은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 또는 미래인재센터에 방문 요청 [채용면접은 협조전 발급 불가]
* 기타 사항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교내공지) 및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2. 사회진출 지원 맞춤형 컨설팅(1:1)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컨설턴트	분야	장소	청운관 상담시간	신청방법
이연의	이력서 및 자소서 첨삭	오비스홀 355호	목 10:00~18:00	
박언경	로스쿨/공기업/공무원	제1법학관 107-2호	화 09:00~17:00	
홍상기	직무·기업분석/면접전략	청운관 1층 5번 상담실	월 09:00~17:00	
오신종	대기업/직무분석	오비스홀 356호	월 09:00~12:00	
윤정훈	외국계기업/영문이력서	청운관 1층 2번 상담실	금 10:00~14:00	

컨설턴트	분야	장소	청운관 상담시간	신청방법
문상기	대기업/UN·국제기구/서비스산업군	청운관 1층 상담실	상시	
이종구	금융권/대기업	네오르네상스관 330호	-	미래인재센터 문의

◆ 주의사항

상담 당일 취소 불가 (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취업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담당 교수 참고 바람

* 2019-1학기부터 학생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운관 상담시간을 컨설턴트별로 주1회 마련 (위치 : 청운관1층 2번 상담실)

컨설턴트 사정에 따라 상담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종합정보시스템 사전예약시 일정 및 장소 확인 가능

3. 미래인재센터 SNS - 취업 및 사회진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팔로우하세요!

SNS · 앱 이름	이용방법
KHU 알리미 앱	▶ 앱 설치 → PUSH 취업정보 수신 동의 ※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개인정보변경-PUSH 수신 등의 체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 페이스북 검색창에 "khujob" 검색 → "팔로우하기"
인스타그램 (#khujob)	▶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khujob" 검색 → "팔로우하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 검색창에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검색 → "친구추가"

대학사회 만연한 족보 매매, 정보의 불균형 없애야

강래완 기자 krw97@khu.ac.kr
오진영 기자 clara0504@khu.ac.kr

시험기간이 되면 족보를 구하거나 판매하는 수많은 글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강의의 필기와 기출 문제 등을 담은 자료집을 뜻하는 족보는 대학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족보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족보는 교수가 직접 만들거나 해당 수업을 먼저 수강한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시험의 출제 경향이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 족보는 통상 선후배간 친목에 의해서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거래로 전해진다.

매년 학생 사이에서 족보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올해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학 SNS '에브리타임'에는 족보를 사고판다는 게시물이 비밀 게시판 461개와 그 외 국제캠 게시판, 서울캠 게시판, 새내기 게시판, 졸업생 게시판 등을 포함하여 총 638개 업로드 됐다.

대학 내엔 족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지난 4월 4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족보문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는 말에 공감하던 우리들이 족보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족보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족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달렸다. 댓글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기출문제를 알려주는 점이 문제가 되느냐"는 의견과 "유출 금지된 문제를 편법으로 몰래 유출하는 족보가 대다수인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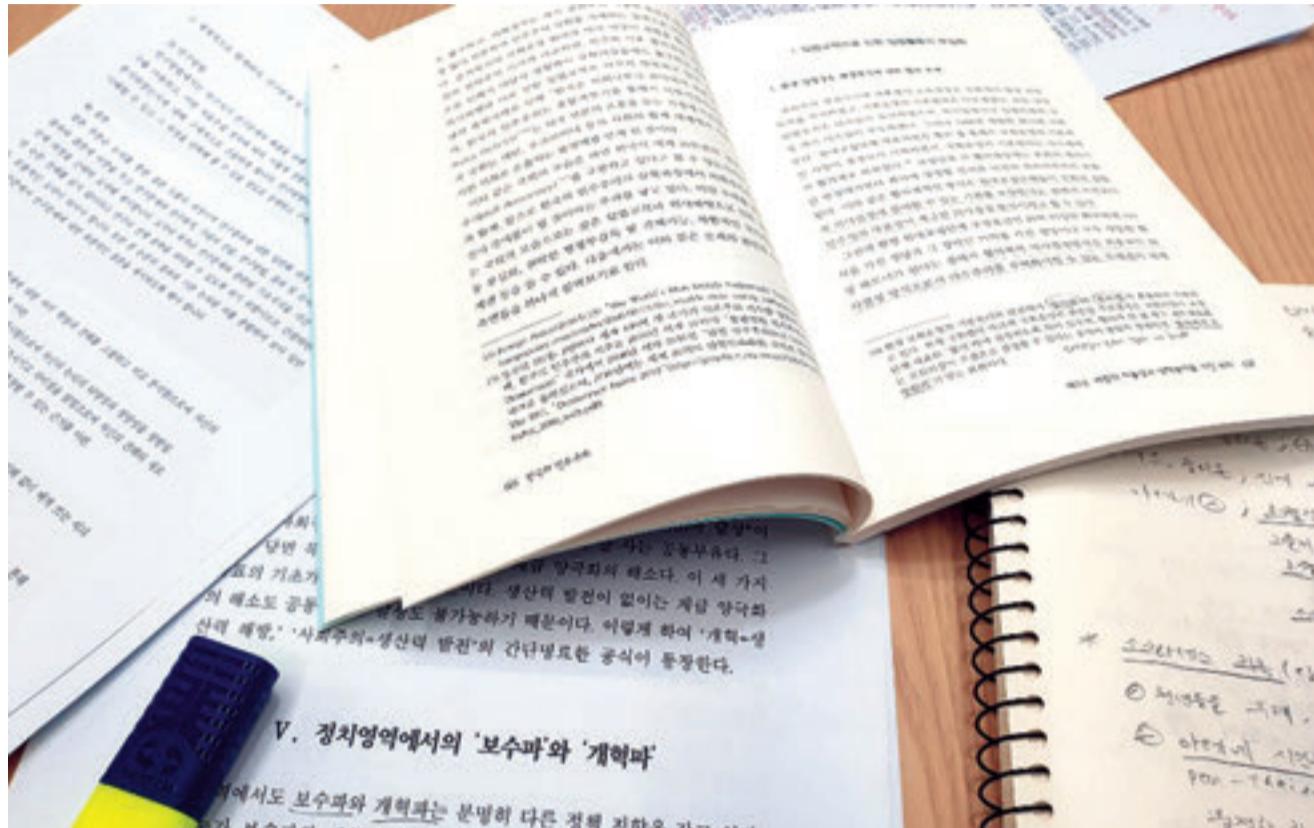
족보의 유통형태

형평성 문제 야기

일각에는 족보가 교수의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김유빈(문화관광콘텐츠학 2017) 씨는 "족보는 방대한 양의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울 뿐더러, 잠시 놓친 수업을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족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학생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는 특



성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맥, 돈 등 자본의 차이가 정보의 불균형으로, 성적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족보 거래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 학기 한 시민교육 팀은 대학 내 족보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바 있다.

대자보는 '족보의 유통형태가 형평성의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대부분의 족보 유통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점이 평가하는 것은 '해당 과목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했느냐'인 점을 강조하며 학점이 인맥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경영학 2017) 씨는 "전과생이나 과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족보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전과생이다 보니 족보가 있는 수업은 시작점부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피하게 되어 들을 수업에 한 계가 생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학교 차원에서 각 수업의 기출 문제를 공개하거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족보를 공유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 자료로 기출문제를 직접 공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스누족보' 사이트는 누구나 수업 관련 자료를 올리고 받을 수 있게 해 기출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우리학교에서도 누구나 족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에브리타임에는 한 이용자가 공정한 기회를 위한 기출 문제 공유 페이지 'KHU 족보'를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개인이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 '족보 블로그'를 개설, 족보매매 없이 모두가 기출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

저작권법상 위법 소지 있어

한동(경영학) 교수는 "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의 수업 족보가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돈 있는 사람은 족보를 사서 좋은 점수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정보를 못 얻어 나쁜 점수를 얻는 것은 문제지만 모두가 정보를 공유해서 공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의 수업 내용과 출제 문제를 담은 내용이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족보 매매는 법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또한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혹은 재산적 권리로 복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수가 만든 시험지뿐만 아니라 교수의 수업은 1차적 저작물로 취급되며, 이 1차적 저작물을 가공한 수업 중 녹취나 족보는 모두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된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여러 부 복사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시험기간만 되면 SNS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 강의 필기와 기출 문제 등을 담은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정(법학) 교수는 "교수의 수업 내용이나 강의 자료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SNS에 게시하거나 별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저작권 배포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학생지원처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강의의 대부분을 판매한 학생이 처벌을 받은 실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시험지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족보를 구매했다. A씨는 "해당 시험지에 유출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봤지만, 족보를 보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족보를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족보를 구매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족보를 구매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또한 족보를 구매하게 된다. 결국 이런 현상이 대학의 '족보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족보문화 개선 위해

학생·교수 노력 필요

불공평한 족보문화가 없어지기 위해선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족보 매매에 대한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가 대학에서 저작권 같은 것들을 필수적으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족보가 통용되도록 매년 똑같은 시험을 내는 교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혜수(무역학 2015) 씨는 "시험에 매년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면 학생들은 결국 족보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며 "만약 매년 시험이 다른 방향으로 출제된다면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족보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 또한 "과거와 같은 문항을 계속 출제하는 것은 교수 개인의 재량, 교육하는 방법"이라며 "학생들이 족보만 추구하는 풍토를 막기 위해선 교수가 다른 방향으로 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지원처는 "교수에게 시험의 형태나 내용의 변동을 권하지만,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매번 바꿔 달라 요청하기에는 현실적 문제 가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험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광희(정치외교학 2018) 씨는 "시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족보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며 "시험 뿐 아니라 리포트나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족보 문제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 제9회 창의적 아이디어 및 디자인 경진대회

2019년 대학창의발명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지식창업교육센터장

| 대회 개요 |

본 경진대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가치 그리고 보고서, 발표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포상하여 격려

- 창의적이고 사업화의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함
- 창의적 아이디어 부문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 모든 아이디어는 선행기술 조사를 필수로 하고, 아이디어를 창업/사업화하기 위한 내용 제시

* 최소 2인 이상 최대 4인이하의 인원이 팀을 구성하여 진행

* 아이디어의 범위는 유형의 제품 혹은 무형의 방법 및 아이디어가 모두 가능(공학, 사회/경제, 자연 과학, 예술, 디자인 등). 단, 사회적인 통념상 바람직한 것이어야 함

| 대회 목적 |

-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업화 가능성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산업 친화적 관점으로 갖도록 장려
- 팀을 구성,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 배양하고 팀워크 능력 향상

| 참가대상 |

경희대학교(서울 및 국제캠퍼스) 재학생 및 휴학생

| 세부일정 |

일정	내용	세부사항
5월 15일(수)	서류접수 마감	E-mail 접수
5월 20일(월)	서류접수 통과자 발표	개별 E-mail 통보
5월 27일(월)	본선발표	PPT, 구두발표
5월 30일(목)	최종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 심사방법 |

아이디어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와 아이디어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시상내역 |

- 대상 : 1팀(50만 원) - 최우수상 : 1팀(40만 원) - 우수상 : 2팀(30만 원) - 장려상 : 2팀(20만 원)

| 접수방법 |

- 2인 이상 4인 이하의 팀을 구성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적으로 제시

- 지도교수선정 :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교수, 강사)를 선정

- 접수 마감 : 2019년 5월 15일(수) 24시

- 접수 서류 : 참가신청서, 요약서, 상세계획서

- 서류 양식 : 한글파일(*.hwp) (신청서 양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 <http://ipeec.knu.ac.kr>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처 : ipeec@knu.ac.kr

개교 70주년 특집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경희

개교 70주년 특집 기획팀 khunews@khu.ac.kr

#. 1949년 개교한 경희대학교가 어느덧 고희(古稀)를 맞는다. 한자 풀이 그대로 일흔 살까지 산다는 것은 옛날에는 드문 일이었다지만 요즘처럼 수명이 길어진 사회에서 고희연은 더 이상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70년 전 학교 문을 열고, 한국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서울 회기동에 터를 잡은 경희대가 70년 이상 지속되며 대한민국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게 될 줄은 당시에는 몰랐을 것이다. 70년을 이어온 영광은 따로 축하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처럼,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를 잘 이뤄왔는지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적어도 1987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으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이 보편적인 정체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생활원리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주권재민으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요구, 즉 민중들의 요구는 항상 정당하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다만 '민중들의 요구'에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뒤따른다. 기득권 집단과의 대화나 대화를 위한 노력이 충분할 만큼 진행되었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구사항이 근거 없이 무시되고 있는가, 이 같은 상황이 시민사회 전체에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민중들로부터 대화보다는 응집된 힘을 보여주는 자발적인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가. 적어도 이러한 전제들이 수반될 때에만, 민중의 집단적 행동은 최소한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역사를 떳떳이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과연 경희가 지난 학원, 사상, 생활의 민주화가 학내 구성원과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는지 짚어보려 한다.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학교의 주인은 학생'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양 캠퍼스에는 교원 1,442명, 직원 446명, 학부생 26,063명이 존재한다. 교원과 직원 수를 합쳐도 학생 수에 한참 모자라다. 학생은 꾸준히 본인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고 실제로 그랬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약해진 학생 민주주의와 파편화된 학생사회의 모습은 과연 학생이 학교의 진정한 주인인지에 의심을 한다.

과거 강력했던 학생 목소리는 등록금책 정위원회(등책위)의 등장으로 대표된다. 우리학교 등록금 책정 과정은 다른 대학과 달리 논의구조가 등책위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로 이원화돼 있다. 우리학교는 1989년 '사립대 등록금완전자율화' 이후 등책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 왔다. 대학본부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논의 기구인 등책위는 오늘날 모든 대학에 존재하는 등심위와는 달리 법적기구가 아니다.

등책위가 우리학교에 등장한 1989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자. 당시 3월 6일 대학본부는 신학기 등록금을 7%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총학생회(총학)는 심하게 반발하며 '대학자치협의회(대자협)' 구성을 통한 민주적 학사 행정을 요구했다. 총학이 요구한 대자협은 교수, 직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협의체였다. 등록금 동결 운동으로 불붙은 대자협 건설 요구는 결실을 맺었고 학생이 학교 행정에 참여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당시 7% 인상된 등록금은 학생의 목소리로 인해 인상폭을 다소 낮춰 5% 인상으로 합의됐다. 학생대표와 기획관리실이 합의한 결과다. 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예산편성위원회 학생대표 우윤식 학생은 "예산안에 대한 전면 공개와 비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삭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하며 합의에 참석했다.

1989년에 일궈낸 등록금 인상폭 축소는 학생의 목소리에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자협으로 시작된 학생의 참여는 이후 등책위라는 우리학교만의 민주적인 기구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 민주주의는 많이 약화된 모습이다.

과거에는 전체학생총회라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자리가 있었다. 학생 최고 심의의 결의기구인 전체학생총회는 서울캠 재학생 1/7 이상, 국제캠 재학생의 1/10 이상 참석을 성사 요건으로 했다. 반값등록금 요구 등으로 대학가가 뜨거웠던 2011년에는 '바꾸자 경희를, 즐기자 민주주의를'이라는 구호 아래 양 캠퍼스 모두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전체학생총회는 서서히 사라져갔고 2013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총회성사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은 종학에게는 위협요소가 됐고, 자연스럽게 '의결'이라는 과정에 일반 학생이 참여할 기회도, 관심도 낮아졌다.

결국 학내에는 구성원이 직접 정치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는 사라지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투표권'만 남게 됐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참정권 행사 기회인 총학 선거조차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선거에서 선출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

생회장은 양 캠퍼스 26,000여 학생의 목소리를 대표한다. 학생자치부터 대학본부와의 협의, 최근 총장 선출제까지 학생을 대표해야 하는 사안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숱한 사안에서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총학 선거는 학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오늘날 그 기본적인 권리 행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칙에 따라 총학 선거 개표는 총 투표율이 50%를 넘었을 때만 가능하다. 과거에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불가능했던 적이 없었다. 1989년 있었던 서울캠 총학 선거에서는 무려 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투표율 미달로 총학 투표 기간이 하루, 이를씩 연장되는 경우가 숱하다. 지난 2018년 서울캠 'KHU:NNECT'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참여한 선거를 들 수 있다. 또한 2017년 서울캠 '열;일' 선본이 참여한 선거에서도 최종 투표율 50.62%로 간신히 개표가 가능했다.

최근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교수의회는 학생 대표단 투표 비율을 대폭 낮추고 교수 투표 비율을 대폭 상승시켰다. 학생 대표단 혹은 교수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어쩌면 예전보다 작아진 학생의 목소리와 기본적인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단지 돈을 지불하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가지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1989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뭉쳤던 학생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학내에 각인 시켜주기 바란다.



위계는 허물고 차이는 뛰어 넘어 성찰과 실천의 가운데서 시민으로 만납시다

대학의 본령은 학문이지만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단순히 학문 연구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대학은 사회를 구성할 시민의 양성 소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시민은 대학에 서 나온다'라는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하향세라 해도 2018년 기준으로 69%에 육박하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OECD 최고를 기록하는 수치고, 여전히 한국인이 대학을 개인의 선택 보다는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대학에 들어온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에서 시민 양성으로서 대학의 기능은 중요하다. 표를 던지는 기준, 나이가 사회에 대한 인식의 틀이 정립되는 곳이 대학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

기 때문이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우리대학의 교훈을 되새길다면 민주시민 양성은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만 보면 우리 학교는 시민 양성이라는 과제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출범 이래 '시민교육' 교과는 전교생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다.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문제, 빙ゴ, 불평등, 민주주의 위기 등을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적 자질을 양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교육을 한다는 것과 학생이 시민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학이 단지 교육기관이었다면 시민 양성을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일도 여기까지겠지만 대학은 하나의 작은 사

회이기도 하다. 시민적 가치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고 체득하는 장으로 기능할 때 시민 양성으로서 대학이 온전히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낮은 투표율로 대표되는 학생자치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투표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에서 낮은 학내정치 참여도는 시민 양성의 위기 역시 보여준다. 그러나 단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대학의 시민 양성이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는 없다. 시민적 자질이 투표율이라는 숫자만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순서를 따진다면 낮은 투표율은 흔들리는 민주적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1987년 혁명 결과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

가 이뤄졌지만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흔적까지 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일상적 태도와 인식의 비민주성을 청산하는 것이었다. 대학의 민주화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화의 결과 총학생회(총학)를 시작으로 많은 학생 자치기구들이 생겨났지만 그것만으로 학생들이 시민으로 거듭날 준비가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당장 학과나 동아리 선후배 관계부터 사뭇 달라졌다. '군기'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2018학년도 새내기배움터부터 총학은 학생대표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김효영(일본어학 2011)

회장은 "대학생 단체 활동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안전과 성범죄, 불합리한 술문화 균절에 중점을 두고 새터를 진행할 것"이라 고 말했다.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역시 예전과 달라졌다. 과거엔 강의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은 따르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차츰 교수와 학생은 역할이 다를 뿐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수평적으로 토론하고 관계 맷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학기 후마 개편안이 시행되자 일군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개편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개진 했다. 그 결과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문제와 개편 내용의 적절성 등 여러 논란과의 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학생과 교수 등등 한 토론자로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70년의 민주주의는 교훈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나



구성원 공동의 지향점...양보와 존중만이 해결책

개교 기념식과 대동제를 앞둔 5월이지만 교내 분위기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지난 3일 열린 법인 이사회는 총장 선출제와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을 늘리겠다는 논의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선출규정안(규정안)을 둘러싼 구성원 대립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총장 선출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각 구성원 단체가 서로의 지분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총장 선출제 논의를 시작하던 구성원들의 ‘초심’은 무엇이었는가를 떠올려 보았다.

구성원 의견의 민주적 반영

우리대학 교훈의 실현

총장 선출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4년이었다. 그해 2월 ‘관선이사 파견 우려’로 법인 이사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걱정하던 당시 구성원들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자’는 목표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우리대학의 교훈과도 관련이 깊었다. 창학 정신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난 70년 간 구성원 모두는 제도와 정책의 주체로 바로 서기를 희망해왔다. 총장 선출제 논의는 곧 구성원의 손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시험대와도 같았다.

구성원들은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일념으로 2014년 11월부터 대평의 산하에 총장 선출제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에 이르러 특별위

원회는 총장 선출제 모델을 마련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가 합의했던 안의 모태가 된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제를 다듬고 법인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다. 구성원과 법인 간 입장 차가 명확하게 갈리기도 했다. 입장 차 속에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도 논의는 끝까지 이어졌다.

대평의에 소속되지 않았던 일부 구성원 단체가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문제를 지적하자, 총장 선출제 논의는 또다시 결렬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앞서 문제를 지적했던 일부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논의체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를 조직했다.

범대위는 대평의가 마련했던 총장 선출제 모델을 바탕으로 전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 법인 이사회에서는 이 모델을 일부 수용한 총장 선출제를 의결했고, 지난 3월 이를 바탕으로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세부 논의 과정에서 생긴

대평의 규정안 논란

하지만 지난해 구성원과 법인은 큰 틀에서의 총장 선출제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총장 선출제 입안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까지 논의하여 결정을 마쳤던 것은 아니었다. 올해 3월, 법인이 제시한 규정 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논란은 이런 맥락에서 발생했다. 여기에 대평의 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며 지금의 혼란에 이른다.

지난 3일 법인 이사회는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늘리기로 했지

만, ‘대평의 규정안 논란’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갑론을박은 여전히 한창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쪽의 입장이 무조건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대평의 규정안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치다.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인 근거로 서로를 설득하고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지난해 총장 선출제 논의 과정에선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구성원 간 논의나 합의의 테이블 자체가 무너졌다.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대평의 규정안이 나온 이후 서로를 향해 일방적으로 쏘아대는 입장만 내놓을 뿐, 한 자리에 앉아 민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다.

구성원 간 진통 있더라도

초심은 놓지 말아야

한때 모두가 품었던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원대한 포부 속에 진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일념은 총장 선출제 논의가 지향하는 지점이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의 실현에 있다는 것이다. 만일 구성원들이 첫 마음가짐마저 잊어버리게 된다면 총장 선출제 논의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할 것이다.

교훈을 다시 돌아보면 지금 구성원들이 놓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바른 절차와 과정, 그리하여 탄생할 ‘누군가의 총장’이 아닌, ‘구성원의 총장’을 바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함께 한 이들



40여 년간 학교에 근무하며 학교와 역사를 같이 한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노동자이다.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학교에서 오랜 시간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과거와 지금, 달라진 인간관계와 근무 환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무관리처 총무팀 소속 장은석 직원은 78년에 입사해 30여 년간 교내 미화를 담당했다. 장 직원은 “노동조합(노조)의 출범 이후 복지 및 대우가 크게 나아졌다”며 “기본적인 권리로 위한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노조 출범 전에는 수당이나 근무환경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웠다고 한다. 장 직원은 “24시간 근무도 잦았지만 하루 43,000원의 봉급에서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일은 지금보다 고되였다. 현재는 자회사가 들어와 개개인이 담당하는 미화의 범위가 비교적 줄어들었다. 난방이 없던 시절엔 야간 조 노동자들은 엄청난 수의 연탄을 나르는 육체노동을 하기도 했다.

힘든 업무와 대우에도 불구하고 장 직원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었던 것은 당시 학생들과의 추억이다. 학생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80년대에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학생들과는 아주 가깝게 지냈지만 요즘에는 개인주의 때문인지 친하게 지낼 기회가 거의 없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명을 요구한 청소노동자 A씨와 B씨는 처우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

이다. 그렇지만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과는 과거보다 친밀감이 높아졌다. 78년도에 입사한 A씨는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의바르지만 간혹 버릇없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87년도에 입사한 B씨는 “과거엔 교수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존재했다”며 “요즘에는 총무처장께서 편하게 이야기를 걸어주셔서 좋다”고 말했다.

근무 환경이나 대우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남아있다. 서울캠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끝내고 2017년부터 자회사를 설립해 청소노동자를 직고용 해왔다. 학교 산학협력단은 기술을 출자하는 ‘기술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는 수익 창출과 사업성을 띤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안정을 위해 자회사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도입했지만, 청소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또한 국제캠퍼스(국제캠) 노동자들은 여전히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상태다. 2017년에는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압박을 받는 등 이슈가 되기도 했다.

자회사 ‘케이에코텍’에 속한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의 강도가 높은 것에 비해 복지 공간이 부족하며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캠 중앙도서관에선 노동자 3명이서 6개 열람실과 외과, 로비, 현관 등의 범위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시험기간마다 24시간 근무를 네 번 한다. 의명을 요구한 C씨는 “경비직원을 포함해

가 성사되기도 했다. 공개토론회는 새롭게 변화한 교수와 학생 관계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과제는 남아있다. 학내에 만연한 외국인 유학생 혐오 풍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국제캠 총여학생회 폐지는 젠더 이슈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이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포용능력 부족을 암시하는 징후 또한 포착되고 있다. 장애인과 성소수자 인권은 쉽게 가시화되기도 힘든 현실이다. 현재 총학은 학번, 국적, 성별과 장애로 인한 학내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치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체로서 연대하는 시민적 자질을 길러내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고민과 모색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본다.

개교 70주년 특집 기획팀

강석현 기자 nujabes99@knu.ac.kr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이서림 기자 silee1001@knu.ac.kr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보도

SPACE21 2단계 글로벌 타워 자연 공공도로 둘러싼 입장 차 원인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서울】 SPACE21 사업이 2단계로 접어 들었지만 학교와 동대문구의 불협화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 마무리와 2단계 사업 시작 양 쪽에서 크고 작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SPACE21 2단계 사업은 크게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두 개의 대규모 신축 사업으로 구분된다. 문과대, 정경대, 음악대, 외국어대가 포함된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됐거나 막 바지에 이르렀고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신축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다. 국제캠퍼스 미래과학관 신축 사업은 구 야구장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캠퍼스 글로벌 타워 착공 계획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노천극장 자리에 들어서게 될 글로벌 타워는 지하 3층, 지상 7 층 규모의 건물이다. 지난 2013년 발표된 초기 SPACE21 계획에도 글로벌 타워는 이미 포함돼 있었으나 행복기숙사 아름원, 한의·이과·간호대 단과대학동 건설로 구성된 1단계 신축 사업에선 제외됐다. 2단계 사업추진 단의 활동 초입이었던 지난해 11월에는 예산 문제로 기존 10층으로 계획된 규모가 7층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학교 자체적인 예산 및 설계 문제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청과의 마찰도 글로벌 타워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한의·이과·간호대 단과대학동과 행복기숙사 아름원 건물 역시 여전히 임

시사용승인 상태로, 구청의 정식 사용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그간 공공도로로 사용하던 경희대로 부지 일부가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사유지라고 인정하며 동대문구청에

게 그간의 부당이득금과 앞으로의 부지 사용료를 경희학원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구청은 2017년 8월 16일,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로 기재했던 신축건물들의 건축인허가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정식 사용승인을 반려했다. 건물 접근성을 확보하고 예상 통행량을 감당하기 위해 공공도로가 필요하지만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희대로가 공공도로 성격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기숙사 입주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사용승인 불가 통보가 나오자 논란과 불안감이 확대됐다. 당시 제49대 총학생회는 구청에 사용승인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입주를 이를 앞두고 구청이 1년의 임시사용승인 조치를 취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구청은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면서 학교에 교통영향평가 기준 충족을 위한 공공도로 확보와 기숙사 건립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은 진전을 봤지만 2016년 경희대로 부지 소유권 판결에서 촉발된 공공도로 확보 건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아름원과 신축단과 대학동 임시사용승인이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만료됐지만 정식 사용승인은 받아내지 못했고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2년 연장하는데 그쳤다. 당시 학교는 2020년 만기가 다가올 때까지 문제를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도 법인과 구청은 경희대로 부지 사용료와 도로 성격에 대한 입장 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아름원 사용승인 반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면담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명확한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법인 사무처 조병렬 계장은 “올해 초에도 경희대로 문제로 구청과 두 차례 정도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추후 후속 협상이 계획돼 있지는

이처럼 결정권자들 사이의 논의가 진척되지 못함에 따라 글로벌 타워 신축 사업은 실무 선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타워 건축인허가를 위해서는 1단계 신축 건물과 마찬가지로 구청이 제시한 공공도로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추진단 김태우 계장은 “당초 글로벌 타워와 글로벌 광장은 국제캠 미래과학관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실시설계에 착수했지만 각종 인허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현재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적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 공간 부족, 불법주정차에 신음하는 캠퍼스

홍연지 기자 lotuspond@khu.ac.kr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아름원 주변 불법주정 차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을 통한 단속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 계장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캠퍼스 환경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엄격히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티커 단속’ 강화로 불법 주정차 문제 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구성원은 지 속적으로 주차 공간 증설을 호소하고 있지 만 당장 물리적인 공간을 늘릴 수는 없다.

한편 국제캠도 단속을 강화해 나설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5회 적발 시 다음 학기 정기권 등록 제한이 그 내용이다. 국제캠은 서울캠과 달리 주차면의 절대적인 부족보다 교직원 주차장에 학생이 주차해 단속되는 경우가 잦다. 국제캠 주차관리사무소 한재현 소장은 “주차위반 제제수단이 차량등록뿐이라 주차위반이 많이 일어난다”며 “주차위반을 상습적으로 한다고 해도 벌금을 물리거나 주차 금지를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몇몇 학생은 아예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고 다니며 계속 위반을 했다”고 말했다.

의명을 요구한 학생 A씨는 “학생과 교직원 주차구역이 나눠져 학생들만 멀리 주차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 주차구역과 교직원 주차구역이 통합되면 현재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주차위반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무관리처 측은 “최대한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급적 구성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이 용 시에는 차량 요일제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차량 출입량을 줄이는 것이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The poster features a large, stylized title 'Kyung Hee Repertory Dance Project' in black font, where each letter contains a different photograph of a dancer. Above the title is the year '2019' in a large, bold, blue and black font. Below the main title is event information in Korean and English.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 경희가 그 길을 연다

70주년 기념 축사



이한구
경희대학교 7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기획위원장

경희 70주년은 경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인류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명의 전환기에 고등교육의 역할과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선도적으로 추구해 온 경희가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다시 100년을 향한 대장정을 출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희 70년의 역사는 대학의 신화를 창조해 온 과정이었고,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을 비롯한 경희가족 구성원은 모두 그 신화 창조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희는 창학의 이념부터 남달랐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교육구국이나 국가발전을 대학의 중요 이념으로 삼는 상황에서 경희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의 이념으로 설정했다. 문화세계란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인류가 추구해 갈 이상세계였고, 그것은 오토피아(Oughtopia)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1954년 건립한 창학이념의 탑이 지금도 교정의 중심에서 역사의 증인처럼 경희인을 지켜보고 있다.

남다른 창학 이념으로 출발한 경희, 문화세계의 창조 추구

경희의 휘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며 세계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우리는 지구 협력사회의 정신으로 평화와 인류를 위해 노력하여 한다.” 이런 이념이 기초가 되어 경희는 38년 전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주도했고, 단순한 명문 대학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대학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창학의 이념 아래서 경희는 평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화의 학풍과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을 추구해왔으며, 다양성과 청의성을 바탕으로 학문의 탁월성을 실현하면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경희 70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반 50년은 기초토대를 다지는 시기였고, 후반 20년은 비약적 성장시기였다. 전반부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경희는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고, 대학의 신화를 창조한다는 찬사를 받기 시작했다. 평범한 보통 대학에서 아시아 대학 평가 31위,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7위 및 국내 1위, 국내 종합 대학 5위, 국제화 2년 연속 국내 1위를 달성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성장이 더욱 값진 이유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시류에 역행하면서도 고등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설립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든 대학들이 현실과 타협하여 실용주의 교육에 매달릴 때, 경희는 오히려 인문학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융합시켰고, 실용적 교육 보다

는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학문에 더욱 방점을 찍음으로써, 고등교육의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 대학 교육에서 새로운 한 획을 끊는 혁명적 시도였다.

기초 토대를 다진 50년 비약적으로 성장한 20년

그간의 성취를 계승하고 앞으로의 비상을 추진하기 위해 7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는 클러스터 형태의 9개 분과로 나누어 대체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로는 학술 분과, 평화 분과, 사회체육 분과, 글로벌 온라인 분과, 사회문화 분과, 바이오헬스 분과, 미래과학 분과, 교사편찬 분과 등을 들 수 있는데, 각 분과 별로 분과위원회 10명 내외의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기념사업을 기획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여 개의 단과대학도 대학 별로 특성에 맞게 학술 행사와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아마 연말쯤에는 이런 행사들의 결실을 책으로 발간하거나 영상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올해 기념행사는 외연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대신, 경희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우리 사회와 인류를 향해 경희가 추구하는 학문과 실천 메시지를 전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 경희가 그 길을 연다>이다. 이런 주제는 학문도 진공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 속에서,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는 지구적 공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함축한다. 이것은 바로 학문과 실천을 끊임없이 융합시켜 온 경희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지구 환경의 파괴, AI와 트랜스 휴먼, 빈부 양극화, 전쟁과 평화, 이념적 갈등 문제 등이 모두 현대 인류가 당면한 과제들이다. 이들은 종합적으로 인류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70주년을 맞아 경희는 이런 주제들에 관해 학술적 탐구를 진행하면서, 가능한 한 실천적 해답까지도 추구하고자 한다.

5월 17일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경희 가족들이 모두 함께 현대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9월 제38회 평화축제 때는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국제기구들과 함

께 <미래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국제학술 및 실천회의를 개최하고, 인류 사회를 향해 <기후윤리실천 선언문 : climate ethics manifesto>을 선포하려고 기획하고 있다. 통상 PeaceBAR라 불리는 평화축제의 ‘BAR’는 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의 약자다.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인간적으로 보람되다는 의미의 이 축제는 아마 70주년 기념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우리 노력의 결실들은 모두 모여 자연스럽게 경희 100주년을 향할 것

이런 노력들이 가져올 결실들은 모두 모여 자연스럽게 경희 100년을 향한 담대한 대장정으로 연결될 것이다. 어떤 난관이 달치더라도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의 창달을 위해 비상하는 경희의 신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경희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경희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 있으라.

100주년을 향해가는 전환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재식
교수회의 및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학주보사로부터 구성원 참여마당 원고 청탁을 받고서 이제 70주년 경희의 오늘과 100주년 경희의 미래를 그려본다. 한편으로 기대와 설레미, 다른 한편으로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미래의 도도한 물결로 오늘의 아쉬움을 함께 밀어내는 심경으로 경희인의 당면과제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경희 역사는 한국 근대사의 태동과 맥을 같이 한다. 당초 경희대의 전신은 신홍초급대학이며, 이는 일제 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던 신홍무관학교의 계보를 잇는 전문대학이었다. 1951년 5월 조영식 설립자께선 오로지 프론티어 정신으로 당시 성재학원의 신홍초급대학 가인가증을 인수, 혼신의 힘을 다해 제2의 창학을 감행하였다. 1953년 11월 지금의 회기동 자리에 새동지를 틀고, 1960년부터는 ‘경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대학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선배님들은 6·25 전란 후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경희의 터전을 닦기 위해 황량

하기만 한 이 별판을 수없이 동분서주하였을 것이다. 이렇듯이 아름다운 경희캠퍼스 곳곳에는 우리 설립자의 숨결과 선배들이 다져온 경이로운 발자취가 들판에 배어 있다.

우리 경희대는 공적인 교육기관이면서도 한편으로 오너십이 발휘되는 전형적인 사립대학이다. 따라서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을 기업의 총수나 CEO와 동일 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막강한 자율적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특히 현재 경희학원은 설립자 자녀세대에 의해 설립자의 창학정신이 계승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제 친족 이사 두 분이 활동하고 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듯, 재단은 급변하는 환경에 걸 맞는 경영철학과 리더십으로 경희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설립자가 선견지명으로 제시한 교훈이자 유훈인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우리 세대에서 구현할 책무가 있다.

오늘의 우리 경희인 모두는 이를 지켜보고 있다. 경희역사 아래 최초로 민주적 선거제도에 의한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행정공백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총장선출규정 제정을 둘러싸고

법인, 학교당국, 각 구성원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혼란스런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지 않은 것은 물론, 더 큰 위기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은 당혹스럽지만 우리 경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진정한 경희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진통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진통이 일시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길 바란다.

이제, 우리 경희는 이 시점에서 향후 70년을 내다보면서 자신에게 차분히 물어야 한다. 명실공히 학원의 민주화를 구현할 단단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더욱 비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희공동체를 향해 돌진해 오는 거대한 위기와 기회의 쓰나미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인도할 훌륭한 총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경희의 총장상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최근 애플은 아이폰 등 하드웨어 부문 혁신이 막히자, “애플은 더 이상 휴대폰 기업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컨텐츠와 서비스업”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컴퓨터업계의 절대강자였지만 수년째 적자에 사세마저 흔들렸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형 클라우드 시스템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5월 초 뉴욕증시에서 꿈의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며 당당히 부활의 축포를 쏘아 올렸고, 인도출신 CEO 사티아 나델라의 리더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が총 133조 원을 투입하여 세계 제1위의 비메모리 부문 반도체 개발로 ‘제2의 반도체 성공 신화’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전문인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와 삼성전자 가 협력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에 반도체학과 학부과정을 설립하고 학생 전원에게 100% 장학금과 100% 취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웃 일본의 대학들은 연간 25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고, MIT는 올 9월부터 전교생에게 AI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지정하였다. 최근 하버드대에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치고 데이비드 맬란 교수의 <컴퓨터과학입문> 강좌가 가장 인기 있는 강좌로 자리했다. 이는 대학에서 전공의 영역을 넘어서 경계를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지금 우리 경희에게도 이런 뉴스메이커가 될 CEO형 총장이 필요하다. 우리대학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간 공간적 거리로 인해 교육, 연구에 있어서 실질적 교류와 협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한 인문사회, 의학, 공학 등 각각의 분야에서 훌륭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면서도 정작 해당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의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환경을 획기적으로 활용하고 키워갈 탁월한 안목을 지닌 선장이 필요하다.

신임 총장은 우리의 눈앞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교육투자를 유치하여 강한 경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획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자산인 경희의료원을 동서신의학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력한 펀드도 들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전체 구성원들의 엄원 속에서 총장 선출 과정을 하나님의 멋진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 과거 설립자께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희기동 허허벌판을 누비며 경희를 일으켜 세웠듯이, 오늘의 우리도 다시 한 번 경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총장을 선출하여 새로운 도약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가슴 뛰는 경희캠퍼스 안에서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함께 역동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한 번의 경이로운 경희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란다. 우리 경희의 70주년은 이어서 각별하고 중요하다.

총장 선출제 갈등, 구성원 의견은?

“교수 비율 75%,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nu.ac.kr



#. 법인 이사회가 총장 선출제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구성원 사이에서 빛어진 ‘대평의 규정안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평의 규정안은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마련된 상식적인 결과”라는 것과 아울러 “범대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미상의 단체”라는 것을 근거로 대평의 규정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교수의회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한상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 손기경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평의 규정안 논란’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시각 차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양 캠퍼스 학부, 대학원 학생회가 공동으로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학생사회가 바라보는 현재갈등의 핵심을 짚어본다. 아울러 우리신문은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와 경희학원통합노동조합, 그리고 박영국 총장 직무 대행과 법인에 인터뷰를 요청해 총장 선출제 논의와 관련된 모든 경희의 구성원 입장은 경청할 예정이다.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노력하여 만족스런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유독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이라는 한 가지 문제를 놓고서 이때까지 교수의회가 행해왔던 노력과 그 진정성이 펼쳐지는 현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난 1일 오비스홀 교수 연구실에서 강재식 대학평의원회(대평의) 겸 교수의회 의장이 ‘대평의 총장선출규정안(규정안) 논란’과 관련해 “교수의회가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추진했다는 일부 구성원들의 주장은 오해”라며 “교수의회는 구성원 간 협의를 위해 현재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의 소통 가능성 또한 열어놓고 있다”며 직접 입장을 열었다.

강 의장은 대평의 규정안에 제기된 일련의 반박들에 대해 ‘대평의 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대학의 중심 주체가 교수이며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대평의 규정안과 높은 교수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대평의는 지난 3월 법인이 제시한 총장후보추천규정 초안을 심의하고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대평의에서 투표를 통해 ‘대평의 규정안’을 의결했다. 교수의회는 지난달 24일 소식지를 통해 “4월 19일(제4차), 4월 22일(제5차) 열린 대평의에서 각각 토론과 수정과정을 거쳐 ‘대평의 규정안’이 도출됐다”며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교수 75%, 직원 10%, 학생 7.5%, 동문 7.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범대위라는 단체와 범대위에서 합의한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전혀 험

하는 것 또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강 의장은 “지난해 범대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 합의 당시 교수의회 내부에서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교수들이 해당 문제를 두고 의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2018학년도 제4차 법인 이사회의 총장 선출제 의결사항 중에서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해 전혀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구성원 대의기구인 대평의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평의 규정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대평의 평의원들의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평의 규정안에서 교수 투표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는 비판에 대해 강 의장은 타 대학 사례와 교수 역할을 들어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 사회의 역할에 비춰 봤을 때 교수 투표반영 비율은 보다 높게 주어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의 중심 역할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 공헌이며 이러한 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비춰 봤을 때 대학의 중심 주체는 교수라고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 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 대학 사례를 살펴보아도 교수 투표반영 비율 75%는 결코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며 “교수의회 조사 결과, 다른 어느 대학도 교수 투표반영 비율이 70%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장 선출과 관련한 구성원 투표 과정에서 교수 투표반영 비율은 전국 국립대는 평균적으로 80% 가량을 차지하며 주요 사립대

또한 모두 80%가 넘는다”며 “따라서 교수 투표반영 비율 75%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대평의 소속 일부 구성원이 대평의 규정안을 규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주적 표결 절차를 거쳐 마련된 ‘대평의 규정안’을 두고 교수의회가 일방적으로 대평의 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오해가 불거진 현 상황에 몹시 유감스럽다”며 “교수의회는 구성원들에 이해와 설득을 수차례나 구했으며 투표반영 비율 또한 교수의회가 당초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80%로 제시했던 안을 내려놓고 종동문회에서 제시한 75%라는 수치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장은 구성원 의견 조율 과정에서 법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총장 선출과 관련한 법적 권한은 법인에 있으며, 그 책임 당사자 또한 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 의견 조율 역할을 법인에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의회 조사 결과, 이화여대는 법인에서 14차례나 논의를 주관하여 구성원 간 의견을 조정하고 총장 선출제를 입안했다”며 “법인이 대평의 규정안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해 빨리 논의를 마무리하고 총장 선출의 절차로 나야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총장 선출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과 아울러 최소 다음 학기에는 새 총장과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총장 선출이 시급한 만큼, 총장 선출제의 완성도를 차츰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만약 총장 선출이 이러한 대립 속에서 또다시 미뤄진다면, 경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안타까운 좌절을 맞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심이 든다”고 말했다.

“규정안 논란은 합의가 아닌 존중의 문제”

〈대학평의원회 규정안〉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 손기경 지부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nu.ac.kr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합의는 이미 치열한 논의 끝에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의료원노조) 손기경 지부장은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두고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초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를 출범한 직후 구성원들은 총장 선출제 논의의 이전에 각자 지분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것에 합의 했었다”며 “만약 각 구성원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구성원들이 바라는 총장 선출제 마련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손 지부장은 “교수의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의료원노조에서도 인원을 근거로 높은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경희의료원 직원만 2,800명 가량,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직원까지 합하면 직원 수는 무려 4,000명에 이른다. 1,500명 정도인 교원의 두 배가 넘는 숫자다.

이어 그는 “의료원노조가 욕심 부리지 않은 이유는 각자의 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보를 통해 민주화로 다가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이다”라며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경희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 ‘나의 한 표가 소중하게 행사됐다’고 느낄 수 있는 총장 선출제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손 지부장은 ‘대평의 규정안 논란’ 해소의 핵심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 있다는 점이라고 짚으며 “처음부터 갈등 구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며 대평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논란 해소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대평의에서 무언가를 논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 범대위와 법인이 한논의 구조를 인정하고 지난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존중하는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의회가 지적한 범대위의 취약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대평의에선 일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범대위라는 단체를 구성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구조 아래에선 대평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수의회는 범대위에 대한 존중을 지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차 총장 선출제 논의를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을 민주 정신에서 찾았다. “단지 투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민주적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이익 또한 존중하며 이 둘을 연대하는 과정에서 민주가 실현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같은 맥락에서 범대위가 합의 했던 내용은 현 시점에서 가장 앞선 민주 정신을 실현한 총장 선출제”라고 말했다.

의료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법인은 구성원 한 사람의 표는 1표임을



선언하라”라는, 다소 과격한 주문을 한 바 있다. 손 지부장은 “입장문에서 1인 1표를 주장했었지만, 1인 1표를 이루는 상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해한다”며 “이는 구성원들이 이끌어왔던 기존의 논의 구조를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빼짐없이 경청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이사회가 대평의 규정안에 대해 밝힌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손 지부장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법인이 교수의회의 행보와 관련해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 그는 “교수의회의 비민주적, 일방적 행보에 대해 법인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인은 올해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인 논의를 제의한 바가 없다”며 “범대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총장 선

출제로 입안하는 것과 관련해 법인의 입장이 분명하게 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인이 3월에 내놓았던 총장후보추천규정을 두고 “왜곡된 총장 선출제를 통해 법인이 원하는 총장을 독단적으로 선임하기 위함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지부장은 “지금은 경희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재정적 지표도 좋지 않으며, 이어진 공사와 후마니티스칼리지 이슈,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시도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경희 학원 전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새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말 그대로 역량과 명망을 갖춘 새 총장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집

▶ 1면에서 이어짐

사실 신방과 1기 동문들에게 캠퍼스는 완전히 낯설기만 한 공간이 더 많았다. Space21도 그렇지만 평화의 전당이나 경경대학처럼 지금 재학생에겐 익숙하기만 한 공간도 당시엔 없었다. 우리대학 건물 특유의 화려함은 졸업생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웅장한 외관과 더불어 공연장의 상들리에를 바라보느라 연신 고개가 젖혀졌다. 평화의 전당에서 유명 연예인의 공연이 숱하게 열린다는 말에 노천극장이나 네오르네상스관(과거 체육대학) 건물에서 열린 행사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체육대학에서 가수들이 공연하고 바둑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며 평화의 전당과 과거 체육대학의 연결고리를 찾기도 했다.

동문들의 이름이 집중된 곳은 단연 정경대학이었다. 신방과가 막 신설되었을 당시에는 따로 정경대학관이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박애숙(신문방송학 65) 동문은 “정경대가 따로 있었던 시절도 아니어서 본관에서 수업을 들었다”며 “정치론 같은 수업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함께 듣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1965년의 신문방송학과는 모두에게 생소한 학과였다. 1954년 흥의대에 신문학과가 국내 처음으로 개설됐다. 뒤이어 이화여대, 한양대, 고려대, 다음이 우리학교였으나, 학문 자체가 한국에서 생소했던 셈이다. 구체적인 학과 커리큘럼도 정착되지 않았던 상황을 두고 김성희 동문은 “당시 우리과 동기들은 굉장한 개척자였다”라고 평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 학문에, 앞으로의 길도 명확하지 않은 학과에 용감히 뛰어든 그들은 가히 개척자의 면모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걱정과는 달리 당시 신방과는 개척자들에게 서툴지만 다채로운 교육을 제공했다. 박애숙 동문은 “당시 학과장님이 저널리스트는 여러 분야에 조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며 “사진은 물론 음악과 미술, 심지어는 레크레이션이라는 과목에서 사고 단스도 배웠다”고 말했다. 아래성(신문방송학 65) 동문 역시 “신문학개론이나 방송론 같은 학과수업 뿐 아니라 KBS 사장 같은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 특강을 많이 진행했었다”고 당시 교육상황을 언급했다.

아래성 동문은 정경대학을 앞에 두고 “학생들이 언론정보학과를 선호하느냐”고 물었다. 신방과에서 시작된 언론정보학과가 하나의 학과로서 내실을 잘 갖추어 이어졌는가 하는 뜻을 내포한 질문이었다. 생소하고 불안정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지금도 캠퍼스 내에 굳건히 자리 잡은 정경대학과 언론정보학과의 모습이 그 질문에 대신 답했다.



1969년 신문방송학 1기 졸업사진을 찍었던 본관 앞에 다시 모인 동기들은 학교 곳곳을 둘러보며 세월을 회상했다.

“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어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학과였으며 다채로운 교육은
매스컴에 눈을 뜨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언론정보학과가 지금의 위상을 차지한 데는 신방과를 선택한 이들, 즉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성 동문은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어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학과였다”며 “다채로운 교육은 매스컴에 눈을 뜨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래성 동문은 언론인의 꿈을 갖고 신방과에 진학, 졸업 후 광고·홍보 계열에 종사했다.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다”는 박상희(신문방송학 65) 동문은 졸업 후 강릉MBC 아나운서가 되며 꿈을 이뤘다. “동기들이 함께 꿈꿨던 언론 계열에 처음 취업한 사례였기에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는 박상희 동문은 이후 포항, 대전 등 지역 방송국과 교통방송 지방 방송국 설립위원회를 역임하며 지금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신방과가 이룬 쾌거였다. 이

러한 교육과 열정의 결실이 모여 오늘날의 언론정보학과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동문들의 눈길을 불잡은 의문의 아이템은 다름 아닌 개교 70주년 기념사업단 학생 서포터즈로 행사에 함께한 학생이 입고 있던 ‘과점’이었다. “우리는 경희대학교 배지를 항상 착용했었다”면서 지금은 모든 재학생이 맞추는 상징이 없다는 점에 신기해하면서도 “우리도 과점 하나씩 맞출까?”하며 웃었다.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던 배지는 지금은 각 학과의 특성과 개성까지 드러나는 과점으로 변했다.

박상희 동문은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 하니 많이 바뀐 모습이 생소하지만 대학시설 강의를 듣던 기억, 아름다운 캠퍼스를 산책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감개 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생 서포터즈로 참여한 김소현(관광학 2018) 씨 역시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학교 방문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지금과의 유기성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졸업생은 변한 학교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주억은 생생했고 지난가는 까마득한 후배들의 얼굴에서 그때와 같은 열정도 보았다. 경희대학교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50년을 뛰어 넘어 변화와 동질성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는 대학이, 대학 캠퍼스가 유구한 시간을 통해 가지게 된 가치다.

대학은 청춘이 머무는 곳이다. 만물이 푸른 봄철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봄이라는 계절이 으레 그러하듯 찰나의 시간으로 지나간다. 대학은 손 뻗으면 달을 듯 한 내疚은 날이 아로새겨진 곳이자, 새겨질 곳이다. 동시에 대학은 청춘이 머무는 곳, 찰나의 청춘들이 모여 언제나 봄인 만년설 아닌 만년봄의 공간이다. 개교 70주년의 문턱에서 오늘도 유구히 이어지고 있는 경희의 봄날을 바라본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 그늘 아래에서 잔다, 산자, 신나, 재미, 공부, 일상, 일상과 일상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남장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